

AUTHOR 김영진

TITLE 70년대를 향한 개혁주의 교회의 해외선교 전망

IN 개혁주의

vol. 38 (June, 1970): 4-8

좀 어수순하다. 그 이유는 확실한 교리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한국교회는 이상하게도 극단적인 운동이 많이 일어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그 첫째가 신비주의 운동이요, 둘째가 신신학 운동이다. 개혁주의 교회는 이것을 타도 해야 한다. 극단적인 신비주의는 순진하고 어릴 영혼들을 잠들어 간다. 불건전한 신앙 사상에 동화되어 성경보다도 환상과 꿈과 자기 판단을 앞세우며 방언과 이적을 말씀의 권위보다 위에 놓고 어지러히 돌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슬픈 현상이다. 이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교회에 끼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아서 되겠는가? 개혁주의는 이것을 바로 잡는데도 사명을 가지고 있다. 개혁주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이 신앙 고백을 무시하고 일어나는 운동이 또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신신학이다. 신신학은 인간을 이성적인 면으로만 끌고 간다. 지적인 인간으로 몰아 세우는 것이다.

<루터>는 말하기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인식하고 믿고 순종하는 참 신뢰의 원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자신의 지혜를 두려고 한다.”(W. T. 2, No. 1583)

고 하였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나 극단적인 신신학은 분명 이 땅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순수한 개혁주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이 큰 것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 3. 한국의 개혁주의 신앙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시에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말씀은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는 것이 었다. 전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이다. 특히 개혁주의 신앙을 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기성 교인들에게도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수많은 교파와 교회에 이 개혁주의 신앙을 심어주는 일은 급선무이다. 그리고 사상계와 문화계에 개혁주의 신앙을 침투 시켜야 한다. 그 첫단계로서 우리는 문서 운동의 활발성을 기해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종전의 “개혁세계”라는 이 잡지를 “개혁주의”로 환원 하였고 더욱 적극성있는 운동을 위하여 체제를 바꾸어 본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협동 정신이다. 개혁주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운동을 위하여 협력해 주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러하고 다음이 개혁주의 정신에 투철한 글들이 쓰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급을 하는 문제이다. 이 세가지가 가능만 해진다면 조국의 개혁주의 신앙화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협동정신을 기루어 가도록 하자.

### 4. 세계 개혁주의 신앙 운동의 중추적 역할

개혁주의 신학의 본산이라고 하는  
(13페이지로 계속)

## 70년대를 향한 개혁주의

### 교회의 해외선교 전망

김 영 진  
(대만선교사)

우리 교단에서 해외선교를 시작한지 벌써 10수년이 지났고 대만과 부라질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 하겠다. 이제 한국교회는 선교국으로써 각교단 각 단체에서 앞을 다투어 가며 해외선교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은 다 같이 기뻐할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왜 해외선교를 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해외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 “타교파에서 선교를 하니” “과거에 하던 선교를 재승 해서” 혹은 “해외선교에 흥미가 있으니” 이와같은 뜻에서 해외선교를 한다는 것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지 아니한가? 이러한 해외선교 동기로 시작되는 사업이니 들리는 말과 같이 해외선교는 현대교회의 장식품이라는 평을 받게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해외선교는 실로 영속적이며 참된 가치가 있는 선교를 위하여 더욱 깊고 그리고 굳은 기초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1. 개혁주의 교회와 해외선교

선교사업은 결코 인간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일이 아니며 근대적 기업도 근대적 발명도 아닌 인류애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에서나 감정에서 나오게 될 것도 아니요 대 사도 바울에게서 위대한 선교사 <카-레이>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가슴 속에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의 최고 계시이며 사랑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요 3:16)이 일절의 말씀은 신약성경의 중심 성구이며 복음의 핵심인 동시에 해외선교를 위한 중심인 성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되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눅 19:10)고 말씀하신 것이다. 복음이란 온 민족과 각이한 여러 환경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전도라고 불리워진 이 사업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전도가 하나님의 성지라는 것은 신구약성경의 일

관된 교훈이다. 혹자가 말한 대로 “성경에서 전도라는 말을 빼버린다면 이 책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이 말은 세계전도라는 것이 성경전체의 정신이요 또한 성경전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완전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신약 성경시대부터라 하겠으나 선교의 정신과 기초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선교역사는 바로 창조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함은 실로 의미 심장한 선교의의를 가지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만드려 주신 형상 그대로 사는데는 하나님과 교제함이 인간에 대한 필요조건이요 하나님은 만국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요 또한 인종의 근원은 단일이요 전인류는 모두가 다 공동조상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현상대로 지음을 받은 까닭이다. 시조 <아담>이 범죄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며 찾으셨고 심지어 그가 뱀에게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도 그 말은 인간을 향한 자비와 구원의 말씀이었으니 이것 역시 선교의 정신과 기초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대로 신약성경은 사복음서로부터 계시록까지 해외선교의 명령과 그 정신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신구약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교훈으로 신봉하여 성경의 권위를 존중시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라고 할 것이다. 우

리 교단이 개혁주의 신앙의 교회라고 자타가 공인한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할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1956년 총회에서 해외선교를 결정하고 세계를 개혁주의 신앙으로 점령하겠다는 세계적 복음화의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출항한 것이 대만선교이었다.

전 세계에 대한 복음선교가 하나님의 재회이요 성경의 가르치고 명하는 교회의 최고의 사업이 이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였다. 그렇다며는 어떠한 신자나 교회라도 이 일에 반대하며 무관심할 것 같으면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때려진 자요 하나님과 일체되지 못한 단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가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하면서 해외선교의 부담을 느끼지 아니 한다며는 그 교회는 비정통적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유일의 완전한 신앙과 실천의 규범으로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확실히 그리고 강하게 주장하며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세계전도의 정신과 그 운동에 이바지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의 의미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일면에서 본다면 세계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고 선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다 할찌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선교가 적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해외선교에 있어서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 문제가 또한 중요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구속의 복음을 사회복음 혹은 구원을 해

결치 못하는 합리주의 철학으로 바꾸어 버리는 선교가 현실이며 또한 추세라고 하겠다. 이것은 실로 바울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는 다른 예수, 다른 명, 다른 복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해외선교는 더욱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개혁주의 교회에 대한 교회내의 적인 적지 아니한 조건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세계 개혁주의 교회는 공동전선을 펼치고 진리를 위하여 전투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주의 교회의 특성은 전취적이라고 할 것이다. 기독교를 훈련하는 것은 승리를 전취할 목적을 향하여 출전하기 위함이다. 전세계적 개혁주의 교회의 구성단위인 각개교회는 그 성명을 나누어 가진 것과 같이 그의 사명과 목표도 분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이제 우리의 책임 범위를 우리 교회의 범위에만 국한치 말고 전세계가 우리의 일터임을 알고 전세계의 개혁주의 교회가 서로 힘을 아울러서 전 세계적인 노고와 임무를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개혁주의 교회목사와 해외선교

세계적전도가 주의 몸된 교회의 제일의적(第一義的) 사명이라고 한다면 이 일에 착수하고 수행에 형벽하는 비결은 교회를 지도하는 목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즉 해외선교에 관한 문제해결의 열쇠는 본국목사에게 있다고 믿어 왔다. 그 이유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마귀워 주신 직무로써 교회원의 지도자요 가르치며 권면하며 성민의 생활과 봉사물 인도하도록 하나님께로 임

명을 받은 자인 때문이다. 그의 지위는 명에롭고 특권적인 지위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엄숙한 책임을 동반하는 것이다. 흔히 잘 말하는 대로 기독교는 원칙으로 그 지도자를 넘어가지 못한다. 지식에 있어서나 열심과 헌신, 봉사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다. 고로 각개교회의 해외선교사업의 열심과 봉사는 그 교회의 단일목사의 그것에 비례하는 것이다.

“칼빈주의를 좋아하는 자는 많으나 참된 칼빈주의자는 적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반성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준칙으로 믿고 또 가르치는 목사가 전신구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명하는 이해의선교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며 실행을 위하여 노력하는가? 개혁주의 신앙을 말하면서 해외선교를 반대하며 못맛당하게 생각하는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개혁주의 신앙의 목사라고 하겠는가? 교회목사는 마땅히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선교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이며 교회물 바로 지도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필자가 자주 듣는 말은 국내 전도가 급선무이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이론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국내전도와 국외전도간의 하등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함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슬어는 사람의 편리상 만든 용어이다. 받은 전세계이며 임무는 하나 뿐이다. 그리스도의 최후 명령은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

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목사는 자기 자신을 예수에게서 임명받은 세계전도의 대리인으로써 자기의 교회 신자를 가르치며 지도하며 영감을 주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리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계획과 그 뜻의 수행을 위하여 최대의 것을 드리도록 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선교의 확신과 그 열정은 국외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이 국내의 목사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것이다. 해외선교의 관심과 노력이 해외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비참한 영혼들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자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그 동정과 봉사의 상대가 전 인류보다 적다고 할 것이면 그의 신앙생활의 범위는 좁을 것이며 그 신앙의 발육은 불완전으로 남아 있을 것이니 신자들의 시야를 확대하여 전세계 인류를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회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세계적인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 그들의 최고도의 성장을 위하여서 본질적인 것이다. 이 큰 사명 이상으로 사람을 넓게 하며 깊게 하고 높게 하며 영감을 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목사가 교인들에게 전도사업에 대한 지식, 또는 공감적인 의식을 주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목사는 그들에 대하여 큰 부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외의 선교에 대한 중대한 목사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목사는 해외선교에 대한 강력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해외선교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할 것이며 선교사들이나 선교회 위원들에게 설교나 강연도 의뢰하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선교를 위한 기도회는 심히 중요한 것이다. 주일 학교나 자기관들의 교육주제로서 해외선교를 교과내용에 넣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장래의 선교사 후보를 발견하는 일이나 그 훈련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일이다. 특별히 해외선교연보를 강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헌금에 대하여는 어느 목사라도 무시하거나 등한히 할 수 없을만치 풍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적지 아니한 목사와 교회들이 이 교훈을 진심으로 생각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봉헌의 중요한 원리는 자원적이며 예배적이다. 목사는 신자들로 하여금 자원적으로 각각 받은바 은혜대로 해외선교사업과 그 외의 주의 사업에 연보하도록 할 것이다. 선교연보를 아니하므로 교회경상비가 풍부해 지는 것도 아니요 많이 연보하므로 부족을 가져올 것도 아니다. 교회 경상비 부족을 우려해서 전도비 책정하기를 불원하는 목사가 어떻게 신자들에게 연보를 권할 수 있겠는가? 헌금통일안이라는 말은 권자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헌금원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혹자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신학교육 사업에 혹은 해외선교사업에 자원하여 연보하게 되는 것이다. 봉헌은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거기에는 정성과 희생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물질의 다소보다도 더욱 운동력이 큰 것이요 여기에는 기도가 있으며 심적 협력이 있는 것이다. 통일안은 이 고귀한 정신적 봉사를

소멸시키는 섬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목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씀과 물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할 것이다.

앞으로 70년대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해외선교를 위해서는 목사와 기타 지도자들이 교회의 제일의 직(第一義的)의무가 해외선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해외선교에 관하여서는 본국의 목사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목사의 태도 그 이상

목적, 지적, 영적수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에 대한 그의 해설이 자기 교회의 활동과 공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까닭이다.

### 3. 결론

"가장 먼 끝까지 비취는 불빛은 가장 가까운 집에 더욱 밝게 비친다"라는 말은 해외선교사업에 자극적인 교훈을 준다. 최악의 흑암중에 살고 있는 불쌍한 백성을 위하여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밝게 밝게 비취는 것은 곧 나의 교회가 밝아지는 것이요 우리 교단이 더욱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혼  
축회

답예품주문배수

# 六日膳物센타

대표 정

주문처: 서면시장 1층나 19호 (법천교회 집사) 관

전화 ③ 9208

전기자재·일체도산매

국제시장 3동구 B동 52호

## 유린전업사

대표 양

전화 ④ 24669 (자택)

상 (삼일교회 집사) 현